

# 일본 소상공인, 한국 소상공인



김승호의  
시선

일본 도쿄에서 1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던 옛 친구가 갑자기 한국에 왔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게를 유지하는게 쉽지 않았다는 게 직접적인 이유였다. 그런데 알고보니 친구의 무난한 고국행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친구가 들려준 코로나 정국 속에서 일본 정부가 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가히 놀라웠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친구와 같은 개인 사업자를 비롯해 50인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200만엔씩을 공짜로 줬다. 이는 코로나19로 전년도 대비 매출이 떨어진 사업자가 대상이었다. 환율을 편의상 100엔당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돈 2000만원에 달하는 큰 돈이다.

일본 정부는 또 소상공인들에게 가게 월세와 고용지원금도 나눠줬다. 이 돈 역시 값지 않아도 된다. 월세는 월 500만원 한도내에서 3분의 2까지 6개월치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급했다.

또 가게 주인에게는 직원을 자르지 말라고 1인당 월급의 80% 한도내에서 고용지원금도 6개월 동안 줬다.

일본은 또 음식점 영업을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자에겐 하루 6만엔씩을 지원했다. '오후 8시 영업 제한'은 강제성도 없어 주인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8시까지 문을 열거나, 안받고 장사를 하면 그만이다. 정부 방역에 동참한 이들에게 '당근'을 확실하게 준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집합금지 조치도 없었다.

비단 공짜 지원뿐만이 아니다. 자본금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등의 경우엔 자본금 한도내에서 3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이후엔 약간의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또 소금음 대출도 활성화돼 평소 주민

세를 내는 이들이 원하면 일정 금액을 대출받아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원금은 향후 10년간 나눠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0년 소상공인'이 많은 일본의 한국과는 더 견줄 수 없는 과격적인 지원이다.

한국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주말 손실보상이 담긴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작년 손실까지 보상해달라는 민심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올해 7월부터 10월 사이 3개월치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됐다.

받은 사람은 '찜찜찜찜 줬다'는데 준 사람은 '충분하다'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결과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나라빚 걱정까지 했다.

나라 부채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이나 여당 의원들만 갚는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갚아야 할 돈이다.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칠까 걱정이다. /bad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26일 (음 6월 17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 품위와 예의로 주변을 돌본다. 48년 깊은 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념과 용기를 갖도록. 60년 내가 편안해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 72년 승진에 밀려어도 기상을 잃지 말자. 84년 생각이 자유로우니 밤새 뜬눈으로 자셈.
- 소** 37년 평소의 신념은 하나의 마력. 49년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온다. 61년 이상은 멀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73년 아름답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85년 음주보다는 도서관을 찾아 업무 파악을 하도록.
- 호랑이** 38년 밤하늘의 별처럼 동화속의 마음. 50년 미리 앞서서 결실을 얻는다. 62년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처럼 느낀다. 74년 모래 위에 쓴 약속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86년 뛰어난 인물들은 한결 같이 고독했다.
- 토끼** 39년 돈이 공략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요새는 없다. 51년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 63년 순풍에 돛대 배가듯이 순조로운 하루이다. 75년 나를 알아주는 이 없어도 작전 진행. 87년 전체를 파악해야 갈 길이 보인다.
- 말** 40년 하늘의 뜻에 따르면 하늘도 감동한다. 52년 중매를 잘하여 옷을 선물 받는다. 64년 사람이 하는 일이나 실수가 있을 수. 76년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을 지켜준다. 88년 식용개발에 열의 즐거움을 갖는다.
- 뱀** 41년 겸손하니 복은 스스로 온다. 53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65년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은 필요하다. 77년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다면 그물을 먼저 준비하라. 89년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어려움이 따른다.
- 양** 42년 한사람의 힘으로 다수를 이길 수 없다. 54년 돌을 얻기 위해 하나는 양보해야. 66년 의지력이 약하니 사업하려는 생각은 그만. 78년 결과도 중요하나 과정을 무시하지 마라. 90년 약속은 미래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 닭** 43년 싸우고자하는 의지가 없으면 무기가 무슨 소용. 55년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한 날. 67년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자. 79년 때로는 깔끔한 포기가 득이 된다. 91년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 원숭이** 44년 농부의 노고를 생각해보는 날. 56년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 68년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80년 상사를 탓하지 말고 서류를 잘 살펴라. 92년 오늘의 과제는 숙제요 내일의 숙제는 예습.
- 개** 45년 집안을 잘 이끌어 부유를 찾았다. 57년 머리가 혼란하니 중요한 결정은 미루자. 69년 산다는 것은 부단한 노력의 연속. 81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이웃사촌을 만나보자. 93년 책으로 능력과 자신의 폭을 넓혀라.
- 돼지** 46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날이다. 58년 좀 부족한 듯하나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70년 내가 가진 특기로 다른 사람까지 도움을 주게 된다. 82년 대문 밖까지 청소를 해본다. 94년 영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겸손하도록.
- 47년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59년 돈 나가기 말해도 힘없는 잔소리여긴다. 71년 종일 양산에 떡을 얻는다. 83년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자기 주변부터 살펴라. 95년 성실한 선택은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

# 불꺼진 술집, 그 안은 또 다른 세계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택시도 힘들죠?" "술집들 볼 다 꺼지고, 영업 안할 것 같죠? 동네 주민인 척 밖에 나와서 서로 망뵈주기하면서 영업하는 술집들이 꽤 있어서 늦게 택시타는 손님들도 꽤 있어요. 오히려 기사인 내가 무서울 지경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6시 이후엔 3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되면서 사실상 외식이 힘들어졌다. 덩달아

밤 늦게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이 크게 줄었을거라 예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코로나19차대유행의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해가면서 술집을 영업하는 업주들은 여전히 있다는 말이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손씻기를 생활화하며 외출을 자제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밤늦게까지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과 이들을 받아주는 유흥주점은 부지기수다.

불시 점검이라도 하려하면 되려 적반하

장으로 나오니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나 확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된 직후(12~18일) 서울 지역 자영업자 평균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지만, 불법 영업을 계속된다면 악순환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버티고 있는 선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웃는 날이 올 수 있게 국민 모두가 애써야 할 때다. /tree6834@

## 김상회의四季

### 편집증 강한 사주

스트커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뉴스들이 자주 등장하는 현실에 우려가 크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나 싶을 정도다.

상대에 대한 과도한 팬심으로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자기감정만 중요한 것이다. 의부증이나 의처증만 편집증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가 다른 사람을 보면 견디질 못한다. 자기 견해만 옳다고 주장하며 생각이 다른 부류를 공격하는 것도 일종의 경도된 편집증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주장들만을 모아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반박하다 못해 싸움이 되기도 한다.

온유하고 원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자신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타자의 견해를 경청하지만 견해의 다름이 거의 '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이다. 팔자학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기운으로만 있거나 여러 살(殺)기운이 혼잡하면서 귀문살이 있거나 운(運)에서 다시 오게 되면 정신착란적 증세도 일어난다. 편집증적 증세가 어느 분야로 오느냐에 따라서 웃이나 외도 견해 싸움 이성문제 등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평온한 생활을 누리질 못하는데 운을 탓할 수만도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6 | 10,000원

정답

4	8	2	9	9	8	6	2	1
2	8	6	1	4	8	9	2	9
1	9	9	2	2	6	8	8	4
6	2	9	8	1	9	8	4	2
8	9	4	8	9	2	1	6	2
2	1	8	4	6	2	9	8	9
9	4	2	6	8	1	2	8	9
9	6	8	9	2	4	2	1	8
8	2	1	2	8	9	4	9	6

8	9	9	2	2	8	6	4	1
4	6	2	1	8	9	2	8	9
1	8	2	9	4	6	2	9	8
2	9	1	4	8	8	9	6	2
8	2	4	6	9	4	1	8	9
6	8	9	2	9	8	9	4	4
2	2	6	8	9	4	1	8	9
9	4	8	1	2	9	2	6	6
9	1	8	9	6	2	4	2	8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50대 예약률 84%... 내일부터 55~59세 접종 시작
- ▲ 이재용 26일 가석방 조건 채운다... 삼성합병·프로포폴 재판이 변수 /사진 뉴시스

- ▲ 노동계 "4단계 집회금지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에 잇단 진정
- ▲ 15년만에 물동량 3배 ↑... 인천항, 세계 50위권 진입



-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또 강행... '광화문 예배'도 예고
- ▲ 조국 "말 친구 수사기록중 3시간반 공백... 검찰 필요" /사진 뉴시스